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鬼火前導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11년 겨울 36호

반목로관
사랑
드림

Cover Story



「채씨효행도-귀화전도」, 소치 허련, 1869

소치 허련이 1869년에 蔡弘念의 효행을 그린 채씨효행도 5장 중 한 장이다. 부친의忌日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비바람이 몰아쳐 갈 수 없게 되자 갑자기 나타난 도깨비불의 인도로 제사에 임할 수 있었다(鬼火前導)는 내용의 그림이다. 최초로 발견된 도깨비 그림이라는 점에서 민속학적인 중요성이 매우 크다.



Contents

기획 | 도깨비

- 04 도깨비를 믿음으로 삼은 신앙들
- 08 설화 속에서 만난 도깨비

선비들의 문화사랑

- 13 비해당 목묘신상권 뒤에 쓰다

회원마당

- 16 타고르-끝없는 예술에의 열정

회원마당

- 20 소박한 유물 짜릿한 행복
- 22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
- 24 해지는 서쪽을 바라보며

학술상

- 28 扶餘 九鳳里遺蹟 出土 鉤에 대한 考察

- 32 박물관회 소식

숨은 전시 찾아보기

- 34 중국 사행을 다녀온 화가들

-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책을 만들면서..

보고 또 보아 왔는데
사계절이 변했어도
보고싶은 맘... (水)

무얼 시작하기에는 늦은
그냥 손놓고 있기에는 이른
11월은 그런달이다.
창밖 빈가지 남은 감이 아직 붉다(河)

새하얀 눈을 기대하기보다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이 가을을
붙잡고 싶어지는 것을 보니
이제 나이를 감출 수 없는가 보다(愛)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른가지처럼
흔들리는 신경줄을 부여안고
서쪽을 향해 가고 있다(리)

겨울이 또 오나 봅니다.
추운건 정말 싫은데...
여기 더 소중한 인연들이 있으니
그 온기로 올 겨울 거뜨하겠지요.^^*(정)

기지개를 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한해를 꼭 채웠다.
올겨울 엄습해 올 추위
도깨비가 물리쳐 주지 않을까... (藝)

좋아하는 계절.
더욱 천천히, 여유롭게. (延)

회지에 글을 신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11년 11월 28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김정태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애경·최예정·하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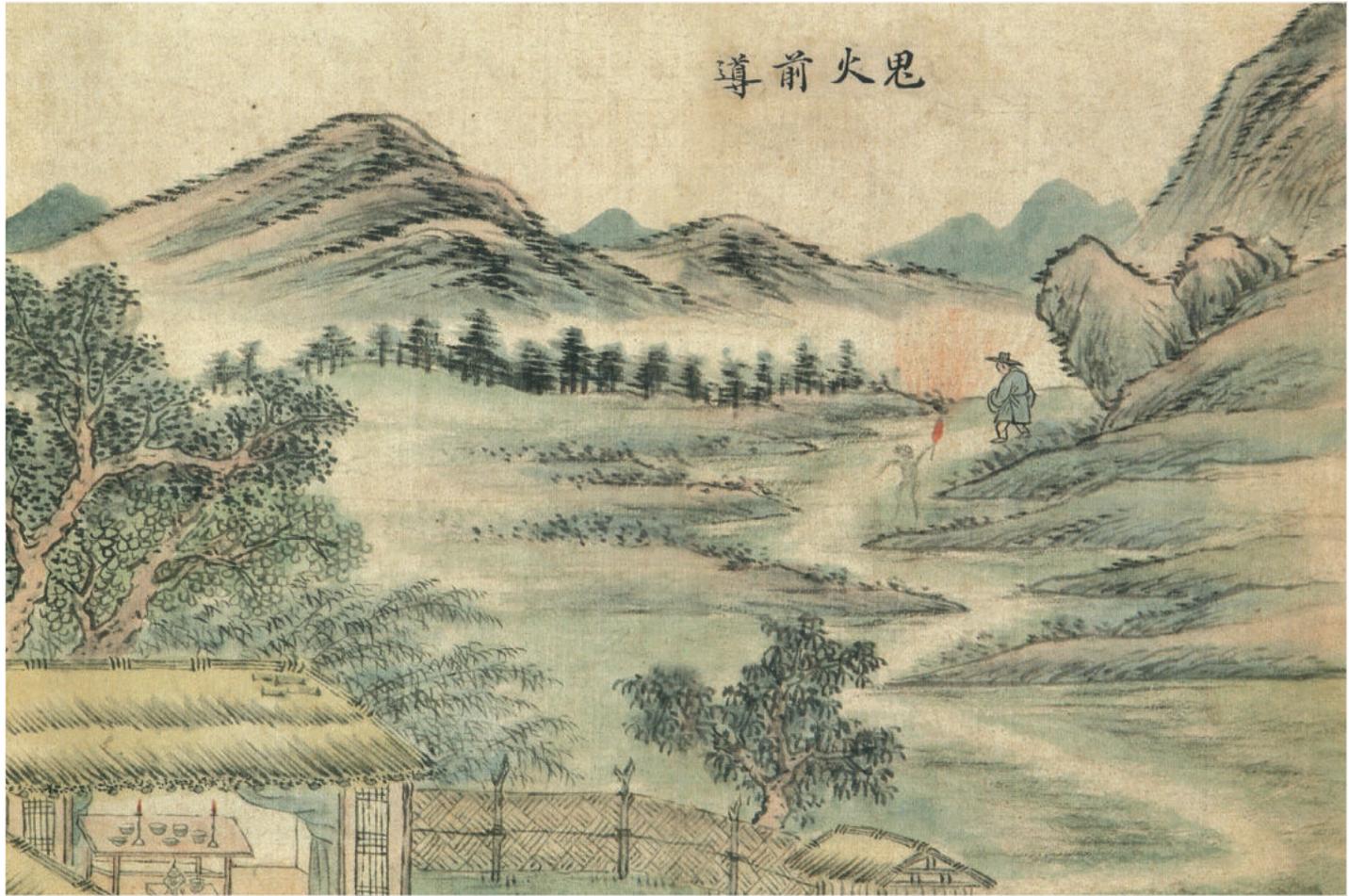
진행 | 서승연

발행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01

도깨비를 믿음으로 삼은 신앙들

글 김종대 _ 중앙대학교 교수

도깨비를 왜 신으로 모셨을까

도깨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물어보면 누구나 한 마디씩은 한다. 이것은 도깨비가 우리와 친숙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도깨비가 친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도깨비란 무엇인가? 어원적인 해석의 경우 ‘뫓+아비’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아비의 사전적 설명은 ‘결혼을 하여 자식을 둔 아들을 이르는 말’이다. 도깨비는 남성적인 존재, 특히 성장한 남자를 뜻한다. 여기서 ‘뫓’은 크게 두 가지로 불(火)과 씨(種子)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이것을 묶어서 본다면 불처럼 재산을 늘여주는男神, 혹은 씨를 피워 많은 수확을 가져다주는 豐饒神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흔히 떠올리는 원시인 복장에 철퇴를 들고 있는 도깨비의 형상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일제침략기에 발간한 『조선어독본』의 내용 중 <혹부리영감>의 삽화에 일본의 오니를 차용하면서 빚어진 결과이다. 결국 도깨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도깨비를 주인공으로 삼은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의 주인공만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 다양한 믿음을 주었으며, 그런 믿음은 신앙적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최근에 와서 도깨비를 신으로 모시는 민간신앙은 점차 전승이 끊어지는 단계에 와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왜 도깨비를 모셨으며, 그런 신앙적인 형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도깨비는 우리 민족의 가장 가까이에서 존재했던 이물적인 존재, 혹은 신이었기 때문이다.

도깨비를 신으로 모시는 민간신앙

사실 지금은 도깨비를 요괴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문헌인 『석보상절』을 보면 민중들이 수명장수와 복을 비는 대상으로 도깨비를 모셨는데, 도깨비를 모시면 횡사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기록도 나온다. 당시에는 도깨비를 신으로 모셔서 현세적인 궁핍에서 벗어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복을 추구하는 대상으로만 남아있으며, 신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민중들은 도깨비를 신으로 모시는 것과 동시에 역신이나, 화재를 일으키는 신 등으로 이해하여 이와 관련한 신앙행위가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풍어를 가져다주는 신

어민들이 모시는 중요한 신은 용왕이다. 고기를 몰아다주는 신격으로서 용왕은 그 중심에 서 있다. 그 하위신 중에 하나가 도깨비이다. 특히 서해안의 갯벌지역에서 활발한 전승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거의 소멸상태에 있다. 과거 갯벌지역에는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고정망, 즉 덩장이라고 부르는 그물을 갯벌에 설치하였다. 이들은 갯벌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요행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요즘은 배마다 어군탐지기를 설치해서 고기떼를 쫓아다니지만, 과거에 배가 없는 어민들은 갯벌에 그물을 설치해서 잡는 것이 가장 큰 작업이었다. 그런데 고기가 항상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연안에 고기가 없을 경우에는 어획량이 형편없었다. 즉 고기를 몰아다주는 어떤 신적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존재가 도깨비였다.

전남 신안지방에 가면 바닷물이 썰물때 갯벌에서 뽕뽕뽕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는 도깨비가 걸어다니면서 나는 것이라고 한다. 바로 도깨비는 갯벌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도깨비는 기분이 좋으면 고기를 몰아주지만, 기분이 나쁘면 고기를 쫓아내서 잡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어민들은 도깨비에게 고사를 지내서 자기의 그물로 고기를 몰아다 주기를 기원했으며, 이를 '도깨비고사'라고 한다. 특히 흑산도지방에서 이와 관련한 유래담이 전해진다. 어떤 어부가 저녁 무렵 뱃고사를 지내고 난 후에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지나갔다. 혼자 먹기 적적해 불려서 같이 먹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을 수 있었다. 그 어부는 음식을 같이 먹은 존재가 도깨비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두 번씩 간단한 제물을 그물 주위에 뿌려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도깨비고사는 점차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물고기들이 연안까지 오지 않아 과거 갯벌에 그물을 설치하고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은 배를 구입해서 멀리 나가 어획하는 추세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02



03



04

도깨비고사는 사라지고 대신에 뱃고사가 끝나고 배 주변에 고사 음식을 뿌리는 행위에서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

질병을 가져다주는 疫神, 도깨비

도깨비가 전염병 등의 질병을 옮기는 역신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은 매우 흥미롭다. 아마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귀신 문화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도깨비까지도 역신의 기능을 수행한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그러나 역신으로 등장하는 지역은 매우 한정된 곳, 즉 전라도와 제주도라는 점에서 지역적인 특색을 보인다고 하겠다. 역신퇴치와 관련한 도깨비제, 혹은 도깨비굿은 전북 순창의 탐리와 전남 진도가 대표적인 전승지역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제의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라는 것이다.

먼저 진도의 경우 정월 보름이 되기 전에 마을에서 여성들이 모여 도깨비굿을 칠

준비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짓대에 매달린 여성의 속곳으로 여기에는 월경혈이 묻어 있다. 도깨비가 바로 이것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것이다. 간짓대와 헛대를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손에 소리가 나는 금속성 기물, 예컨대 냄비뚜껑 등을 들고 나온다. 이들의 얼굴은 온통 검은 칠을 하였으며, 사람마다 가면을 써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분장을 한다. 나중에 도깨비가 얼굴을 봐두었다가 해꼬지를 할지도 모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온 마을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굿을 친다. 집안의 부엌, 광, 마루바닥 등 도깨비가 숨어서 은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쭉시면서 쫓아낸다. 이런 방식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굿을 치고, 그 집에서는 굿을 위해서 소반 위에 돈과 쌀 한 그릇과 정화수 등을 준비한다. 굿이 끝나면 마을 삼거리로 와서 제의가 행해진다. 그런 후 굿패들이 모두 젓상 옆에 있는 짚으로 피운 불을 뛰어넘어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진다. 특히 집으로 가는 동안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된다. 나중에 도깨비들이 얼굴을 기억했다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순창 탐리 마을에서는 정월 보름날 남성들의 주도로 당산제를 지내고, 17일에 여성들만이 모여 '도깨비제'를 지낸다. 먼저 낮부터 메밀로 묵을 만들며, 이것이 완성되면 저녁 무렵에 여성들만의 굿패와 제관 한명이 당으로 오른다. 당은 한 곳이 아니라 마을로 들어오는 동서남북 4방향에서 지낸다. 짚을 열십자로 놓아 제단을 만든 후 무나물과 묵, 그리고 막걸리와 사탕 등 간단한 제물만 올린다. 이 마을에서는 원래 도깨비제가 전승되다가 끊겼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다시 시작이 되었다. 그 이유는 마을 출신들의 젊은이들이 외지로 나가서 죽는 일이 생겨서이다. 굿패들은 뽑힌 사람만 올라가지만, 음복 때에는 마을 여성들이 모두 참여한다. 제주도에서는 여성이 병에 걸리면 '영감놀이'라는 굿놀이를 행한다. 도깨비가 원래 여성을 좋아하는데, 여성이 병에

- 01 「채씨효행도-귀화전도」, 허련, 1869
- 02 전남 여천군 사곡리의 진생고사를 위해
서 있는 매구꾼
- 03 전남 여천의 풍어기원을 위해 세운 도깨비막
- 04 진도 도깨비굿(제물상 앞의 불)
- 05 제주도 영감놀이의 영감(도깨비)



05

걸린 이유가 바로 도깨비가 여성의 몸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에 심방이라고 부르는 제주도 무당이 도깨비의 다른 형제들을 불러 술과 음식을 잔뜩 먹여서 흡족하게 만든 후에 여성의 몸에 들어온 도깨비를 데리고 가라는 내용의 굿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제주도의 도깨비는 여자를 매우 좋아하고, 특히 술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재를 일으키는 도깨비

전북 산간지방인 임실과 진안, 무주 등지에서는 정월 보름이나 음력 10월초 등에 도깨비제를 지낸다. 제의의 목적은 산간 마을에서 불이 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들 마을의 경우 예전에 불이 크게 나서 마을 전체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불이 난 이유가 바로 도깨비불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도깨비제를 지내면 마을에 불이 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특히 진안의 반송리나 임실 상월리에서 행해지는 도깨비제는 전남 진도처럼 여성들만이 참여해서 굿을 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임실의 구암리에서는 여성들이 제물을 준비하고 나르지만, 제관은 남성이 행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은 대개 물과 관련된 장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울 옆이나 물둑뎡 옆에서 제사를 올리며, 불을 쉽게 끌 수 있기를 기원한다.

우리 민족은 도깨비를 웃음거리로 삼지 않았다

우리 민족은 도깨비를 단순한 웃음거리이기 보다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존재로 믿어왔다. 특히 죽음과 삶, 즉 병을 막고 풍요를 얻기 위한 대상으로 도깨비를 생각하고 이와 관련한 신앙행위를 행해왔다. 그것은 도깨비를 통해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하고자 했던 소박한 염원에서 생겨난 것이다. 🍷



01

설화 속에서 만난 도깨비

글 강은해 _ 계명대학교 교수

도깨비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도깨비가 누구인가 하는 명사적 의문을 넘어 왜 두드리는가 하는 동사적 행위를 주목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그 자질 속에 도깨비소(素)를 품고 있어서 도깨비를 아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아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나를 아는 것이 갈수록 미궁이듯, 도깨비를 누구 또는 무엇 하나로 규정짓는 일은 부질없다. 그러나 도깨비가 동사적으로 두드리는 존재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래서 도깨비에 대한 실마리는 그가 왜 두드리는가로 부터 풀어갈 수 있다.

도깨비의 원래 이름은豆豆里이다. 한국인들은 두드림으로 신명을 풀어 그 所出이 생명력의 발산, 곡식의 생산, 쇠(金)·무기·농기구, 다리건설, 보(淤)막이, 누문세우기 등 공동의 생산과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기꺼이 헌사한 이름이 바로 두두리 도깨비이다. 그는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속에 한 부분 붉은 점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1) 두드리다의 어간 '두드리', 두들기다의 어간 '두들'의 표기로 豆豆乙을 사용함.

두두리·木郎 도깨비의 이름찾기

신라 경주의 두두리¹⁾는 목랑을 민간에서 부르던 속칭이다. 목랑은 신라 경주 王家藪에서 사람들로부터 제사를 받던 신앙의 대상이다.

목랑은 俗에서 두두리라고 부르는데 비형 이후 俗에서 두두리 섬기기를 심히 성히 했다.

〈王家藪,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 고적〉

속설에 전하기를 “이 절터는 본래 큰 못이었는데, 두두리의 무리가 하룻밤 사이에 메꾸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靈妙寺,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 불우〉

두두리와 목랑은 그 명칭의 계보가 다르다. 목랑은 형용사적 형상을 지칭하고 두두리는 동사적 기능을 띤 명칭이다. 신통력을 가진 힘의 주체로 불려질 때 그 호칭은 두두리의 뒹이고, 무식한 자가 믿는 무력으로 취급받거나 효험 없는 존재로 전락해 갈 때의 뒹은 목랑이다. 고려 때 무신 이의민은 신라의 豆豆乙신을 꾸준히 신봉했다.

의민은 문자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무격만 믿었는데 경주에 木魅가 있어 土人이 豆豆乙이라 불렀는데 의민이 堂을 집에 일으켜 이를 맞아두고 날로 제사하여 복을 받았다.

〈고려사 열전 이의민조〉

도깨비는 이 같은 상황에서 나무아버로서의 형상적 명칭을 우리말로 풀어 계승한 이름이다. 즉 뚝가비는 뚝구+아버이다. 망치·메·절굿공이로서 남성상징이며, 나무로 된 男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도깨비는 장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우리가 도깨비의 앞 선 모습이 두두리였다는 것을 쉽게 눈치 챌 수 없었던 이유는 한 존재의 이름이 두두리는 기능에서 생김새로 그 중요성이 바뀌어 불리게 된 탓이다.

대장장이 도깨비(冶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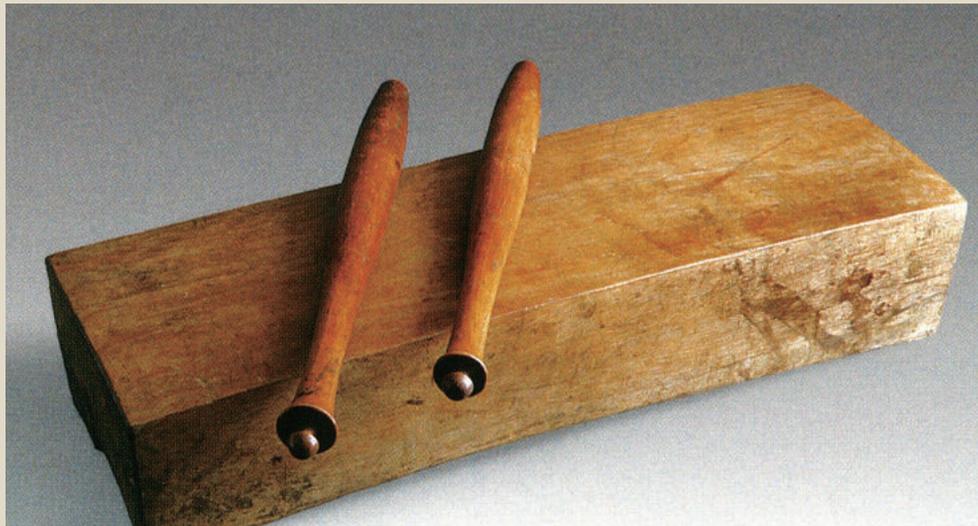
도깨비는 대장장이의 모습으로도 만날 수 있다. 본토에서는 석탈해 신화, 제주도에서는 송도채비 하르방 본풀이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한다.

만주 ‘드른들거리’에 사는 가난한 송영감이 삼형제 도깨비를 만나 그들이 좋아하는 돼지를 잡고 수수떡 수수밥을 하여 전물제를 지내니, 송영감은 삼시에 天下 巨富가 되었다... 도깨비 삼형제는 모두 民이 모시는 일월 조상이 되었는데, 한 가지는 갈라다 뱃선왕으로 모시고, 한 가지는 갈라다 山神 日月또로 모시고, 한 가지는 갈라다 솔불미또(冶匠神)로 모시게 되었다.

〈낙천리 도깨비당 본풀이 요약〉



송도채비 하르방 본풀이에서 도깨비 한 가지는 솔불미또, 곧 대장장이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석탈해는 신라의 冶巫王이다. 석탈해는 “우리집은 원래 대장장이였습니다(我本冶匠)”하고 호공의 집을 빼앗는다. 석탈해는 신라에 정착하기 전 먼저 가락국에 들어가서 김수로왕과 힘겨루기 시합을 벌이는데 그 내용은 변신술 경쟁이다. 탈해가 한 마리 새로 변하면 수로왕은 독수리가 된다. 탈해가 참새로 변하면 수로왕은 새매가 된다. 탈해가 본신으로 되돌아오자, 수로왕 역시 본신으로 돌아온다.



02

수로왕의 성은 쇠김씨이다. 오늘날까지 도깨비의 성이 김씨로 전승되는 것을 돌이켜보자. 가락국에서 왕이 된 김수로왕의 권위는 그가 쇠를 다룰 줄 아는 존재여서 가능했던 것이다. 석탈해 역시 스스로를 대장장이라고 술화하는 것을 보라. 김수로왕과 석탈해의 힘겨루기는 대장장이 왕, 연금술사인 두두리들의 연금술 경쟁이었던 것이다. 신라 서라벌은 쇠(金)의 고장이고, 금관으로 상징된다. 마을 이름이 두두리, 두들이거나 혹은 두들뭇이 있는 곳에는 야철장(대장터)이 있다. 일본의 대장장이 다다라(たたら)가 우리의 대장장이 두두리가 건너간 존재라는 것을 떠올리면 대장장이 도깨비의 모습이 선연히 떠오르게 될 것이다.

도깨비 이야기의 시작과 변화

도깨비 이야기는 신성적 존재로 도깨비를 받드는 이야기로 부터 그 신성을 부인하는 이야기, 또 도깨비를 나무붙이로 경험하는 이야기, 도깨비를 놀이적 서두와 결말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야기로 변화되어 왔다.



土木石 공사의 난제를 해결하는 신성적 존재로서 도깨비를 신앙하는 이야기를 보자.

우가리 우씨촌에 그 앞에 강에 살을 쌓을 적에 도깨비들이 쌓았어.
강에 살을 쌓아야 되는데 우씨가 도깨비 밤참을 메물묵을 썬어줬어.
도깨비들이 살을 쌓았어. 도깨비 하나 뭇아치가 모자라서 하나가 빠졌어.
그래 지 뭇아치는 빼버렸어, 못얻어 먹은 도깨비 지 뭇아치는 혈어 버렸어.
우씨촌에 살을 쌓았어.
혈은 곳에 사람이 막아놓면 터져, 도깨비들이 한 데는 관찰아. 끄떡도 없어.

〈도깨비가 쌓은 살(淤)〉

도깨비 神性を 부인하고 트릭스터(trickster, 설화나 신화에 등장하는 장난꾸러기·질서의 교란자)로 변형시켜 가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도깨비터라는 게 10년이야. 그 후에 폭삭 망해.
 거지가 도깨비터에 가서 살자 눈에 말뚝이 수북 쌓인다. 농사가 잘 돼.
 큰 집 짓고 배짱이 생겨. 땅도 사고 부자가 됐어.
 10년 되면 노름을 해 그 땅도 집도 없애.
 구척같은 놈이 나타나 햇불로 집 추녀마다 돌아가며 굶어. 동네 사람이 불꺼면 다시 불질러. 도깨비불이라.
 그 옆에 초막이라도 지으면 또 태워. 농사도 못짓게 해. 눈에 자갈 쌓고. 아무것도 없어. 도깨비터라는 게 그래.
 <도깨비터>

도깨비를 나무불이(도리깨·방아공이·빗자루·나무피져까리 등)로 경험한 이야기의 세계로
 흘러 들어가 보자.

복재 할아버지가 겪었어. 웬 놈이 덤벼.
 싸움을 했어, 허리띠를 끌러 눈깔을 띄어 남구에다 매달아 놔는데
 이튿날 도리깨 장치가 뺏뺏이 섰더라야, 구멍 뚫려서 도깨비한테 흘렸어.

도깨비를 놀이적 서두와 결말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옛날에 한 사람이 서당공부를 했는데 벼슬할리만 묘를 쓰고 사람부터 나아만 벼슬한다고 서당에 온 나그네 地史가
 그래. 토째비가 회의하는 자리에 궁벽한 골짜기에 회의할 때 그 곳에 묘를 쓰만 사람나고 벼슬한다고 어린애가 저
 녀마다 골짜기에 가서 기다려. 토째비들이 회의하는데 골짜기에 누웠어. 다음날 조부님 묘를 썼어. 그러이 토째비 회
 의장소가 명산이라. 나중에 하정승이 됐어. 정승 벼슬을 했어.

신성과 관련한 진지, 마성과 관련한 진지, 현실적 경험과 관련한 진지, 진지하지 못한 이야
 기, 이러한 네 체계의 도깨비담은 각기 그 이야기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화자와 청
 자의 의식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변화를 꿈꾸는 한류문화의 연금술사

도깨비는 음이면서 양이다. 다시 말하면 陰中陽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도깨비 이야기가
 전승되는 현장은 왠지 낯선 분주함과 흐드러진 열기에 차있다. 웃기고 괴상하고 활동적
 이고 초월적 능력을 갖춘 바보 도깨비, 그의 얼굴빛은 붉고 행동은 기고만장하며 일을 할
 때는 번갯불 같은 속도감을 연출한다. 그래서 도깨비의 현장에는 신명이 따른다. 도깨비의
 특성은 문득 출몰성, 집중적 초월성, 몰입이후 건망증으로 남성적 특성과 관련이 깊다. 도
 깨비의 차림이 壯丁으로 나타나며 여자나 노옹, 유소아가 없는 점을 상기할 만하다.

어디서나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인의 특성이 조금하기도 한 일면 새로운 창조를 누구보
 다 빠르게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한류 문화의 개성은 도깨비와 무관하지 않
 다. 그래서 도깨비는 오랜 세월 동안 합리를 이탈한 환상적 현상이나 경험에 대해서, 이도

01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고려시대, 보물 제6호
 02 나무다듬이, 조선 19세기, 너비 61.3cm





저도 풀어 볼 길이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일의 시원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그 책임을 떠넘긴 존재에게 바친 이름이었다. 도깨비가 두두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도깨비 자신과 <난타>가 얼마나 친연한가 또한 그가 한국문화 속에서 <난타>의 흐름을 주도해 온 원형적 존재인가도 스스로 밝히기 시작하였다.

도깨비의 난타는 현대 정보화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컴퓨터의 자판과 모니터는 새 시대의 망치와 모루이다. 깨알 같은 자판은 수많은 정보의 갈래들을 용광로 속에 녹이고 두드려 대장장이가 새로운 금속을 창조하듯 정련된 정보의 기호들을 합성해 내는 것이다. 도깨비는 변화를 꿈꾸는 한국인의 연금술사이다. 그 앞에서 한국인의 모든 것은 용광로 속에 던져져 녹고 연단된다. 이제 한국인의 진짜 모습은 情과 恨이 아니라 신명과 변화의 주체인 도깨비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



掛衣篇
 閨裏佳人年十餘
 顰蛾對彩恨難居
 忽逢江上春啼燕
 銜得雲中尺素書

01

비해당 묵묘신상권 뒤에 쓰다

書匪懈堂墨妙神賞卷後 - 張維의 谿谷集 3卷

글 유중용_회원

이것은 倪·馬(倪謙과 司馬恂) 두 사신이 匪懈堂(안평대군)에게 시를 증정하고 그의 필적을 찬양한 것으로, 당시의 名人들이 지은 시와 글 약간 篇을 묶어 하나의 軸으로 만든 것이다. 申君爽[申翊聖] 東陽都尉(선조의 부마)가 가지고 와서 보여 주기에 내가 열람하였다. 보고 나서 감탄하기를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세상에 찾기 어려운 진귀한 것이구나. 殷의 常法¹⁾이나 夏의 九鼎²⁾으로도 그 예스러운 맛을 비유하기에 부족하고, 楚의 옥돌³⁾이나 隋侯의 구슬⁴⁾로도 그 보배스러움을 견주기에 부족하다' 하였다.

대체로 이 두루마리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특이하게 뛰어난 점 네 가지가 있다. 예로부터 書法에 능하다고 일컬어 지는 사람을 보면 위로는 鍾王(鍾繇와 王羲之)으로부터 아래로 伯幾(鮮于樞)와 子昂(趙孟頫)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書生으로서 마음 고생을 한 다음 경지에 이르렀다. 호화롭고 귀한 환경에서 성장한 이의 경우는 서법에 이름을 걸고 온통 힘을 쏟아 노력한다 하더라도, 妙境에 제대로 이르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런데 오직 비해당만은 존귀한 왕실에서 태어나, 왕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젊은 나이에 절륜한 경지를 보여 주며 천하에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특이한 점이다.

서법은 원래 능통하게 쓰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다. 옛날 魏文貞(魏徵)이 文皇(당 태종)의 글씨를 보고서 虞世南의 戈法⁵⁾이라는 것을 알아챘는데, 이 경우 유심히 살펴보고서 알아낸 것인데도 오히려 鑑識眼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倪內翰은 한눈에, 붓을 휘둘러 쓴 세 글자를 보고 서법이 妙境에 이르렀음을 훤히 알았으니, 이 감식안 이야말로 千古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특이한 점이다.

— 海外의 기예에 훌륭한 것이 하나쯤 있다 하더라도, 중국 조정의 學士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만도 어려운 일인데, 더구나 존엄한 천자의 칭찬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리고 천자가 본 것만 해도 벌써 큰 행운인데, 거기다가 아주 특별한 상을 내리고, 이를 새겨 천하 사람들에게 보여 주도록 까지 했으니. 이는 참으로 지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전례 없는 영광이요 은총이다. 이것이 세 번째 특이한 점이다.

— 英廟(세종)께서 이를 듣고 기뻐하신 나머지 詞臣들에게 명하여 이 일을 노래로 만들게 하였으니, 지금 이 두루마리 속에 보이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勳業을 이룬 金節齋[金宗瑞]·河晉山[河崙]·申高靈[申叔舟]·鄭河東[鄭麟趾], 문장으로 이름난 徐達城[徐居正]·崔寧城[崔恒], 節義를 세운 成昌寧[成

三問]·朴平陽[朴彭年]·李韓山[李壘] 같은 이들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이들이 취하고 버린 바는 비록 같지 않다 하더라도 모두가 한 시대의 꽃다운 위인들이었다. 그들이 확실하게 주장하는 점을 본다면 해와 달과도 빛을 다룰 만하게 뚜렷한 것이니, 오랜 세월이 흐른 다 한들 이와 같은 인물들을 다시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이름이 연이어 등장하고 그들의 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흰 비단 폭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 두루마리를 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네 번째 특이한 점이다.

—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우리 조선의 이 시기야말로 文采가 빛나며 太平을 구가하던 절정기였다고 할 것이다. 世廟(세종)께서 신령한 자질로 왕위에 임하시고, 궁궐 안에는 비해와 같은 아들이 계셨으며, 조정 반열에는 위와 같은 신하들이 늘어서 있었기에, 筆墨으로 游戲한 것도 중국에까지 이름을 빛내어서, 온 누리에 전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다. 아, 어찌 성대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천하에 보배로운 글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네 가지나 특이한 점을 가진 목적은 온 세상을 찾아보아도 연기가 어려울 것인데, 末學 鯁生이 또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두루마리 첫머리에 『匪懈堂墨妙神賞卷』이라 표기하고 이렇게 써서 돌리는 바이다.

- 1) 殷의 常法 : 「書經」 '康誥'에 나오는 말로 '殷彝'라고 한다.
- 2) 夏의 九鼎 : 夏의 禹王이 九州의 금을 모아 아홉 개의 솥을 만들어, 각 주의 역사를 기록한 古鼎으로, 후대에 皇權을 상징하는 寶器가 되었다.
- 3) 楚의 옥돌 : 초나라 卞和가 楚山에서 옥돌을 얻어 인정을 받지 못한 채 형벌을 받고 두 발을 잘렸다가 뒤에 寶玉임을 인정받았던 卞和氏之璧이라는 고사. 『韓非子 和氏』
- 4) 隋侯의 구슬 : 隋侯가 다친 뱀을 치료해 주자 그 뱀이 밤중에 큰 구슬을 물고와 은덕을 갚았다는 고사가 있다. 『莊子 讓王 疏』
- 5) 虞世南의 戈法 : 당 태종이 우세남에게서 서예를 배웠는데 戈脚(右向으로 비스듬히 갈고리처럼 끝맺는 서법)이 잘 안되었다. 그래서 우연히 '黠'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戈'는 비워둔 채 우세남으로 하여금 채워 넣게 한 뒤 위징에게 보여 주었는데, 이때 위징이 말하기를 "지금 세상의 작품을 보건대 오직 黠자의 戈法이 逼真하게 되었다."고 하자 태종이 그 뛰어난 감식안에 탄복하였다.

※ 張維(1587~1638) : 조선 중기의 문신
양명학파로 천문·지리·의술·병서 등 각종 학문에 능통했고 서화와 특히 문장에 뛰어나 조선문학의 四大家라는 칭호를 받음.

再送嚴上座歸南序

湖南老師嚴上座六十餘年行

坐于禪喜少間斷獨得般若

02

01 擣衣篇, 안평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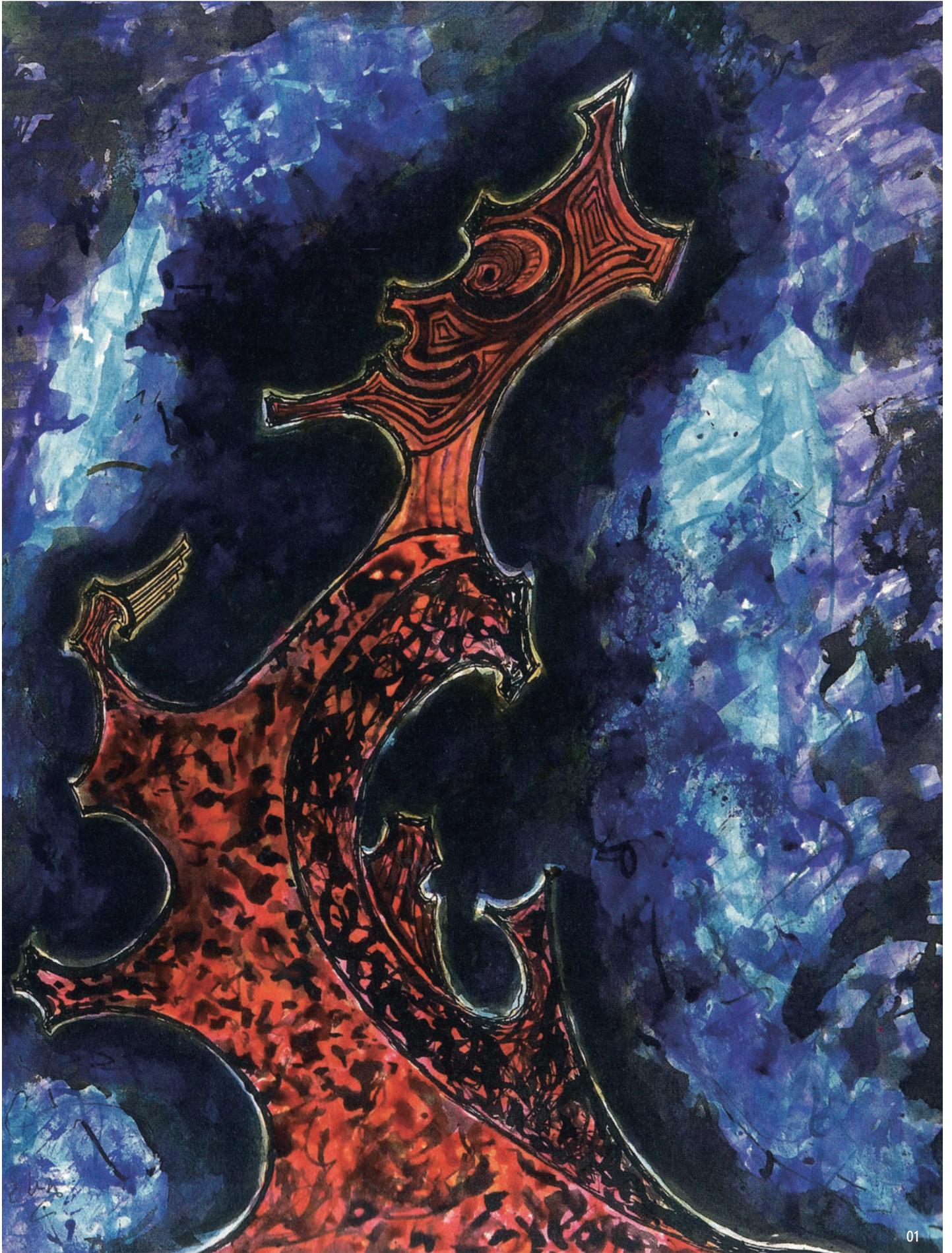
02 再送嚴上座歸南序, 안평대군

[사족]

여기 나오는 '匪懈堂墨妙神賞卷'의 축이 아직 세상에 전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明代에 文名을 떨치던 대학자 倪謙 같은 이가 높은 감식안으로, 常法이나 九鼎 및 和氏之璧 등의 진귀한 보배들에 비유하면서 당대 제일이라 했으니, 그 글씨를 상상해 봄직하다. 현재까지 전하는 안평대군의 眞蹟이 희귀한 것은 계유정난으로 강화에서 서른여섯의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지금 남은 그의 작품은 금석문으로 볼 수 밖에 없고, 草書보다는 楷行이 대부분이다.

淸의 錢泳은 '서예란 첫째가 타고난 천품이고, 다음이 노력이라고 했다. 비해당은 詩文書畫琴碁에 두루 능했지만 특히 '書'에 천부적인 소질을 발휘했다. 그는 松雪體를 배웠으나 그 경지를 넘어 섰고, 활달한 필치는 豪邁한 개성을 발휘하여 누구도 따르지 못할 경지를 개척했다. 字劃이 端雅하고 정중하여 고귀한 인격을 표현했다. 그는 타고난 재주에다가 고금 서화에 대한 집념이 강하여, 북문 밖의 '武溪精舍'와 南湖의 '淡淡亭'에 수많은 명품과 장서를 모았고, 때로는 文藝的 雅會를 가지기도 했다. 明에 사신으로 가서 많은 명품들을 보고 수집하여 직접 臨書도 했으며, 申叔舟가 쓴 '書記'를 보면 200을 넘는 고금의 명작들을 비치하고 있었으니, 그 경지를 짐작할 만하다. 書劃이란 붓끝을 통해 쓰는 이의 마음과 미의식을 표출하여 영원화 시키는 작업이다. 따라서 붓이 머무는 시간, 옮겨가는 속도 같은 運筆의 묘는 이미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그의 글씨는 획들이 가지는 어울림이나 다른 글자들과의 예술적 조화로움이 흠잡을 데 없다. 이는 李匡師의 書訣에 나오는 '붓끝의 한 획은 그 안에 상하내외의 다름이 없다. ...고려 이래로 우리나라는 단야한 붓놀림과 농묵의 필법이 행해졌다'는 이론에 아주 잘 맞는다.

비범한 안목은 명작을 알아본다고 했으니, 네 가지로 출중한 비해당의 작품을 알아낸 계곡의 감식안 또한 출중하다 하겠다. 



타고르 — 끝없는 예술에의 열정

글 최예정_회원

깊숙한 눈매에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先知者의 모습을 하고 그윽하게 먼 곳을 응시한다. 신비의 나라 인도의 詩聖, 「기탄잘리」, 동양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우리가 알고 있는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Rabindranath Tagore* 이다. 그가 회화로 우리를 찾아왔다.

— 마치 원시시대 동굴 속에 들어간 느낌이다. 조명만 꺼진다면 사파리 복장을 한 채 햇불을 들고 동굴탐험을 하다가 벽에 비친 어렴풋한 형상을 더듬어 그림임을 알아봤을 때의 기쁨이랄까. 동굴벽화이다. 선은 뭉툭하게 혹은 송곳으로 굵은 듯 투박하게, 색은 번진 듯 먹빛이기도 하고 원색적이기도 한 원시 그대로의 날 것 같다. 우리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희한한 동물의 모습, 상상 속의 동물이란다. 누구의 지도도 받은 적 없는 아이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림이다. 그의 초기작품은 상상력과 우연의 산물이다. 원고를 쓰다가 줄을 그어 지워버린 단어들을 선으로 이었더니 우연히 원시의 얼굴·괴물·새·동물들이 나타났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형상이다. 그림을 그려가다 보니 그림이 되었다. 그가 평생을 통해 몸으로 습득한 생각의 리듬, 소리의 리듬이 구원을 받아 자연스러운 드로잉으로 표출된 것이다. 풍부한 상상력이 기성 화가들과는 다른 실험적이고 자유로운 미술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02



영락없는 황제의 모습이다. 높은 관을 쓰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한껏 위엄을 뽐내고 있다. 눈은 휘둥그레 동자가 맴맴 돌고 턱을 쭈욱 잡아 빼 입을 지나치게 강조한 품이 역설적이게 우스꽝스럽다. 게다가 몸은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 휘어진 등 위에 화려한 비늘을 엮고 다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마무리했다. 왕관과 용, 붉은 옷까지 온갖 최상은 다 끌어다가 지상 최고를 선포하고 있다. 주위를 에워싼 보라색은 더욱 가관이다. 가장 화려한 색상을 열게, 짙게 쥐락펴락하면서 환호하는 백성을 그리고 있다.

타고르는 상상 속 초자연적인 존재를 넘어서 현실로 눈을 돌려 인간의 몸짓과 움직임을 통해 자연을 재발견한다. 그는 문학·음악·철학·연극·무용 등 여러 예술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겼고, 특히 연극과 무용에서 영감을 얻어 움직이는 신체가 보여주는 몸짓을 표현하는데 집중했다. 얼굴은 작가로서 인물을 묘사하는 감각이 영향을 미쳤고, 몸의 표현에서는 연극 무대의 경험에서 쌓은 관찰력이 실현되었다. 또한 춤을 통해 맞본 흥분이 그대로 그림 속의 인물로 전해진다.

여인이 사뿐사뿐 춤을 추고 있다. 나래를 퍼듯 팔을 휘이휘이 내저으며 뛰어오르고 있다. 아니 하늘하늘 날고 있다. 색상도 노랑, 주황, 가볍고 산뜻하다. 복잡한 붓놀림 하나없이 아이의 솜씨처럼 단순하고 따뜻하다. 내 마음대로 '천사'라고 이름 짓는다. 이번에는 좀 격렬한 춤이다.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치고 팔을 힘있게 휘두르면서 한 쪽 다리를 번쩍 들고 뱅그르르 돈다. 동작이 역동적이고 빨강과 파랑의 색상 대비도 강렬하다. 짹! 짹! 캐스터넷츠의 리듬에 맞춰 한참 흥이 난 집시여인의 탱고춤이 아닐까. 두 그림 다 움직이는 순간의 극적인 긴장감이 잘 드러나 있고 여전히 원초적 색감이 친숙함을 더한다. 그렇더라도 부드럽거나 혹은 강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타고르의 직접적인 해설이 아니라 관객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전해지기를 원했다.

그가 회화에서 가장 관심을 보인 대상은 사람의 얼굴이다. 그 자체를 자연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형태로 인식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초기에는 고대 사제와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가면으로 형상화시켰다. 얼굴만 덩그러니 그려놓고 눈·코·입을 과장함으로써 마치 캐릭터 작업을 한 듯 얼굴만 봐도 몸 전체를 상상할 수 있다. 그가 얼굴 윤곽선에 숨겨놓은 비밀암호를 풀도록 관객에게 장난을 걸어온다. 둔탁하고 영성한 필치가 기술적으로 향상되면서 점차 초상화의 모습을 갖추나가기 시작한다. 막연한 얼굴 속에 지인들이 차츰 오버랩되고 자연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움을 모색하였다. 거기에 그저 단순한 초상의 의미만이 아니라 문학작품 속의 인물을 재현해 넣었다. 우리가 그의 작품을 보면서 인물들의 역할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유이다.





05

06

07

08

타고르는 자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더불어 식물·사람·동물 등 살아 있는 모든 것의 형태를 생생하게 느꼈다. 작가는 그저 관찰자로서 그들의 존재를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그의 작품도 관객들 스스로 자연에 다가가듯이 공감과 감성을 통해 이해되기를 원했으므로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마음껏 상상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름 붙이고 실컷 상상했다. 그의 원시적인 미술은 전문가의 세련미는 없지만 훨씬 따뜻하고 진실함이 느껴진다. 그가 말년에조차도 線들의 마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예술적 감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始原을 찾아가는 언어처럼, 그 수많은 예술적 업적과 여행을 통해 얻은 충만한 문화적 경험이 결국 회화로 대미를 장식했다. 大家의 끝도 없는 열정과 창의성이 부럽고 존경스럽다. 전시실을 나오며 '희귀한 재능을 타고난 그에게는 모든 예술이 한계가 없다!'에 나의 마지막 감탄부호를 찍는다.

따뜻한 전시는 소리내어 보채지 않아도 알음알음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아시아관 한 칸 소박하게 자리잡은 전시임에도 많은 이들의 시선을 붙잡는 힘은 명성이 아니라 그림이 전하는 메시지에서 나올 것이다. 언어와 음악으로는 채울 수 없는 소통의 부족함을 회화로 충분히 메웠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예술가적 열정의 결실이 되었다. 타고르는 일제 강점기 실의에 빠진 한국인에게 '東方의 등불 코리아'를 예견하면서 큰 위안을 주었다. 이제 80년을 훌쩍 뛰어넘은 오늘에도 그의 예술의 진실성으로 우울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다. 🍷

- 01 타고르, 1933-34, 38.9×31.5cm
- 02 타고르, 1929-30, 25.3×35.7cm
- 03 타고르, 1932, 28×21.6cm
- 04 타고르, 1936, 25.4×17.6cm
- 05 타고르, 1930-31, 27.9×21.8cm
- 06 타고르, 1936, 23.2×15cm
- 07 타고르, 1933-34, 37.7×25cm
- 08 타고르, 1939, 24×23cm



01

소박한 유물 짜릿한 행복

글 송민숙 _ 회원

특설강좌 시간에 유물전시관을 관람하면서 검은 간토기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청동기 전시실을 들어서니 얼마 되지 않아 정면으로 조그마한 토기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토기의 아담하고 단아한 모습이 내 눈길을 끌었다. 가까이서 보니 두 개 중 하나가 검은 간토기였다. 잠깐 동안 감상하고 돌아섰는데 다른 유물실로 가는 내내 마음은 자꾸만 검은 간토기에게로 갔다. 토기의 담백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이 그 이후로도 머릿속에 가끔 떠올랐다.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여유있게 감상하리라.

— 지난주 조용히 청동기 전시실을 들어서면서 검은 간토기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미소가 절로 떠올랐다. 그것은 아마 첫 날 내 머릿속에 남아 있던 간토기의 아름다움 그대로 다시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잠시 멈춰서 먼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노라니 이번에는 꾸밈없는 기품까지 가지고 있질 않은가. 학창시절에는 보는 눈이 트여있지 않아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는데, 마흔이 넘은 지금에 조그맣고 소박한 유물 하나가 나에게 짜릿한 행복을 준다.

조용조용히 다가가 보았다. 마치 명상 속에 잠겨있는 사람의 고요를 깨뜨릴까봐 조심스러운 발 걸음으로. 그렇게 가까이 가니 간토기는 유리막 안에 정갈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다. 조금 전의 미소가 그대로 가지지 않는다. 어찌면 그리도 절제감이 있어 보이는지! 자태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다. 토기의 흐르는 선을 보니 덕 있는 사람의 온화함을 보는 듯하고, 최소의 것만 취하면서도 초라해 보이지 않는 근검한 이를 보는 듯하다. 눈짐작으로 크기를 어림잡아 보니 20센티미터 정도 되어 보인다.

이 작은 유물의 기품은 어디에서 오는지 좀 더 세세히 느끼고 싶어서 펜으로 모양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눈으로만 볼 때와는 달리 기품 있고 단아한 아름다움의 근원이 드러난다. 간토기의 목과 몸통의 길이가 비슷하여 간결하게 보이고, 목 입구는 바깥쪽으로 살짝 벌어져 마음 넉넉한 군자처럼 답답해 보이지 않는다. 목 위부터 목 아래까지 안쪽으로 살짝 굽은 선은 절제감으로 다가온다. 몸통은 부드러운 선으로 흐르다가 아랫부분에서는 그 선을 편안함으로 쉬게 할 량 옹팡지게 모아진다. 작지만 전체적인 균형이 세심히 잘 잡혀 있어서 마치 바흐의 평균율을 듣고 있는 듯 편안한 느낌을 준다.

초기 철기시대에 만들어져 대전광역시 괴정동에서 출토된 검은 간토기는 말 그대로 검정색 토기이다. 토기에 흑연 등의 광물질을 바르고 문질러 구워서 광택이 돈다고 한다. 그러나 칠흑 같은 검정색이 아니다. 토기의 많은 숨구멍 사이사이로 바람과 시간의 흔적들이 들고 나면서 지금도 진열장 안에서 오롯이 숨을 쉬고 있는 듯한 검은색이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손길도 닿았을 검은 간토기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으니 분명 무생물임에도 숨을 쉬고 있는 존재로 다가온다. 검은 간토기는 철기시대의 전형적인 토기라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시대에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토기의 모양을 저렇게 담백하게 멋지게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백제금동대향로나 반가사유상, 또는 청자 등 감탄을 주는 유물들이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쓰는 토기가 오랜 뒤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아름다운 멋을 가지고 있다니...

많은 유물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美는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들이 생득적으로 얻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화살촉 하나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장식을 넣기를 추구하는 걸 볼 때 그렇다. 이번에 검은 간토기를 만나서 보고 즐기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총만함을 느꼈다. 어떤 조각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식이 더해진 것도 아니다. 단순한 토기임에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은 검은 간토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 때문이리라. 감상하면서 특히 유물의 선을 따라 그려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었다. 눈으로 볼 때 보다는 훨씬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었다.

청동기 전시실을 나와 3층 전시실에서 청자를 잠시 접했지만 곧장 발길을 돌렸다. 검은 간토기의 멋을 종일 되새김질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청자의 아름다움은 다른 하루에 느끼기로 하고, 박물관에서의 이런 묘미는 나에게 또 하나의 세계를 열어준다. 🐼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 - 삼국유사에서 인생을 배우다 -

글 김옥숙 _ 회원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에 와 있다'는 시에 공감한다. 그동안 뭘 했나 싶은 자괴감이 아침저녁으로 갑작스레 쌀쌀해진 바람처럼 거드랑이를 파고든다. 일정 나이를 먹으면 인생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상실해가는 과정의 연속에 지나지 않게 된다. 중요한 것이 하나하나 빗살 빠지듯이 손에서 빠져 나간다. 그럴수록 삶이 소중해지고 간절해지고 욕망도 그만큼 커진다.

살아온 세월만큼 성숙해져야 하고, 삶의 속도에 불안해하기 보다는 밀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박물관 강좌를 신청하게 되었다. 매일의 일상사는 반복적이면서 동시에 일회적이다. 인생은 역사적이면서도 신화적이고 종교적이면서도 세속적이다. 그래서 때로는 세속을 초월해 꿈을 꿀 필요가 있다는 교수님의 삼국유사 강의가 가슴에 록 박히도록 매력적이었다. 삼국유사는 우리를 꿈꾸게 하고 초월하게 하며 약간은 환상적이게 한다. 일연스님이 걸었던 길을 더듬으며 과거로 먼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수천년 전에 살았던 선현들의 삶이 묻어나는 그 길을 역사라는 이름 아래 걷다보면, 인생의 참 맛을 알게 되고 마음이 풍요로워 질 것 같았다. 길을 걸으며 묵묵하게 제 자리에 있는 자연을 스승삼아 삶을 되돌아보고 위로와 휴식을 찾는다. 일연도 그러했을까?

- 13세기 승려 일연은 국가의 위기 속에서 역사를 기록했다. 단군신화, 고조선에 관한 서술은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정립시키고 단군을 우리의 國祖로 받드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건국신화, 설화, 향가는 우리 고대 문화를 실증하고, 고대 사회상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통 받는 민중의 모습을 불교 신앙에 의지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전국을 떠돌면서, 보고 겪은 이야기를 책으로 묶은 것이 삼국유사이다.

- 일연은 경상북도 청도군 호거산에 위치한 운문사 주지로 있으면서 삼국유사를 저술했다. 이전부터 기록해 두었던 내용과 길을 따라 걸으며 보고 들은 내용을 덧붙였다. 대단한 기억력에 현장 감각도 탁월하다. 역사를 보는 눈은 불교적인 바탕으로 쓰였으나 불교를 배척하는 내용도 기록했을 만큼 균형 감각도 있었던 것 같다.

- 원시 고대국가들의 생활상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나 보다. 무왕과 선화공주 사이에는 서동요 같은 재치 있는 노래가 있다.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의 위력과 여론 조성의 효과까지 엿볼 수 있다. 현화가는 낙엽 지는 가을에 읽으면 어울릴 만한 자유롭고 발달한 신라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월명대사가 지은 제망매가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으나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것을 가을 나뭇잎에 비유했다. 낙엽처럼 무상한 인생과 형제간의 애정을 표현한 아름다운 詩이다. 향가는 한국문학의 뿌리이며 훈민정음 이전의 고어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이다. 내세를 지향하여 부른 노래부터 일상생활의 체험을 담은 노래까지 다양하다. 대중에게 불교를 널리 퍼기 위해서 우리 고유의 운율로 지은 우리 말 노래가 절실했으리라.

- 「善德王知機三事」에서는 지혜로운 여왕을 여성이라고 비하하지 않는다. 김유신에 얽힌 설화에서는 신분에 맞지 않는 여인과의 자유연애와 결혼, 그리고 혼전임신까지 나타난다. 신라의 수행승 원효는 진지함과 털렁땡, 성과 속의 경계를 넘나든다. 삶은 유연하게, 또한 비교하지 않는 인생이 행복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준다. 행복의 비결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데 있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있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에 있지 않을까? 삼국유사는 자연을 비롯한 인간 모두가 보배이며 존중 받아야 한다는 교훈이 실려 있다. 일연은 방대한 자료를 채록하여 자주적 역사인식을 확립하였다. 더불어 학술적으로도 수많은 저서를 남긴 뛰어난 논리학자이다. 시대의 자문역할을 충실히 해낸 존재였다.

- '삼국유사는 한 민족의 기억이며, 한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축적되어 있고 집단무의식은 우리들의 감추어진 모습이자, 미래의 씨알이며 우리의 족보이다' 라고 한다. 역사는 진행형이며 살아있는 생물이다.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친다. 역사읽기를 통해 교훈도 배웠다. 올바른 가치가 모두에게 통하는 평화로운 사회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 🍁

해지는 서쪽을 바라보면

글 정혜리 _ 회원

타인의 생활 엿보기,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은밀하고도 위험스런 호기심이다. 무언가 비밀이 없나 캐내고, 별것도 아닌데 궁금해 하고, 냄새가 난다 싶으면 끝까지 추적한다. 그런 면에서는 박물관이 으뜸이다. 수천년, 수만년 전 사람들의 사생활을 알지 못해 안달이다. 남의 물건을 제멋대로 파헤쳐 늘어놓질 않나, 저마다 유추하고 해석하고 상상의 나래를 편다. 옛 사람들이 알았다면 기절초풍해서 자기 물건들을 다 없애버렸을 것이다. 이 재미있는 일에 내가 빠지면 서운하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한 숨 돌렸을 때, 연로하신 시부모님께서 앞집으로 이사 오셨다. 다시 뻥뻥해진 일상의 탈출구로 찾은 곳이 박물관이다. 휴식시간 커피 한잔을 들고 무심함을 가장했지만 내 주파수는 삼삼오오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졌다. 이 사람들 얘기를 슬며시 듣고, 저 사람들 얘기에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러다 수업이 끝나면 전시실을 돌며 옛 사람들의 생활을 엿봤다.



선비가 마주하여 기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바로 茶山이 말한 ‘아름다우나 요염하지 않고 깨끗하면서도 싸늘하지 않은 꽃’ 국화다. 모든 잎과 열매가 시들고 떨어지는 찬 계절에 몇 송이의 국화마저 없다면 시린 마음들을 어떻게 달랠 수 있으랴. 가을의 허허로운 산과 들에서 피어난 연보라빛, 노랑빛의 조촐한 꽃들. 산국, 감국, 쑥부쟁이, 구절초, 개미취 이름은 각각 달라도 모두 들국화라 불리는 이 꽃들 덕분에 가을의 빛은 한층 깊어간다.

- 「아름다우나 요염하지 않고 깨끗하면서도 싸늘하지 않은」, 2003 가을호

무심코 넘기던 회지의 글이 나를 확 잡아끌었다. 지천으로 널린 국화를 보고 이런 글을 쓰는 그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책을 샅샅이 읽어보았다. 별로 정보가 없다. 사무실에 가서 물어볼까. 참자. 옛보기 못지않게 한 내숭 떠는 것도 나 아닌가. 속으로 궁금해 못 참아도 겉으로 티를 내면 안되지. 그러다 우연히 회지 편집에 참여하게 되어 그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다. 새치가 듬성듬성 섞인 생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다소 마른 몸매에 방금 절에서 내려온 보살 같은 옷차림이 대가족 속에서 허덕이는 나와는 다르다.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에 내 기분까지 싱그러워졌다. 그래서 남 옛보기는 즐겁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겨울 날, 우리는 경주국립박물관으로 향했다. 수학여행 가는 여고생 마냥 수다는 끝이 없었다. 정작 박물관에서 마주친 土偶의 모습에 난감해졌다. 적나라한 性의 표현을 어떻게 글로 쓸 것인가. 내가 잘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슬쩍 떠넘기기이다.



02

생명은 기쁘다. 사랑은 이렇게 한다고 온 몸으로 보여준다. 지금 우리의 性에는 얼마나 군더더기가 붙어있나. 그냥 남자와 여자가 열싸안았다. 또 한 치의 틈도 없이 부둥켜안았다. 윤리나 도덕으로 가로막고 포장하기 전, 性의 원래 모습이 있을 뿐이다. 경주 노동동에서 나온 긴목항아리에는 즐거운 신라 여자가 살고 있다. 뒤쪽의 남자를 향해 얼굴을 살짝 돌린 채 엉덩이를 들고 있는 여자! 여자의 다른 모습은 간략하기 그지없지만 허리 아래쪽부터 무릎 그리고 약간 들어 올린 발까지에서 뿜어내는 긴장감. 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집중시키는 터질 듯한 생명의 힘이다. 거기다가 활짝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라니. 성을 다룬 어떤 유물에서도 저렇게 순진하고 솔직한 얼굴을 본 적이 있던가? 이처럼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쁜 웃음을 본 적이 있던가?

- 「작은 사람들의 숨김없는 진실」, 2006 봄호

_쑥스럽고 감추고만 싶던 性을 이렇게 경쾌하게 표현하다니. 갑자기 머릿속을 떠돌던 만가지 생각들이 사라진다. 사실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건 내 자신일지 모른다. 그래서 꼭꼭 감싸 안고 남의 것을 기웃거리며 위안을 찾는다. 古人처럼 드러내놓고 거리낌 없이 웃어 제치면 세상사가 훨씬 만만하고 여유롭다는 것을 이제까지 몰랐다.

고려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들과 내가 같은 마음임을 확인하는 순간 어느덧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는 더 큰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더 멀리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같은 즐거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결국 온 자연이나 온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까지 이르면 이제 박물관은 깨달음의 장소가 된다. 나도 자연의 일부이고 나의 생명줄 어느 한 가닥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직 병원을 드나들어야하는 요즘의 나에게 죽음이란 솔직히 두렵다. 그러나 묘지명을 보며 마음을 다독인다. 삶과 죽음이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03

- 「고려 묘지명을 보고」, 2006 가을호

_그런데 아프다고 한다. 공기 좋은 곳으로 집도 옮기고 박물관도 뜬해졌다. 그래도 우리는 直指寺에서 동자상을 보며 그 귀여움에 탄복하고 가을정취를 느끼면서 진한 대추차를 마셨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기도 나누었다. 박물관에서 만난 인연들은 지겹도록 박물관 이야기만 한다.

_경복궁 뜰에 있던 불상을 새 박물관의 작은 마당에서 발견 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 힘들어 하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가슴에 손을 얹은 불상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웬지 그 가슴은 돌이 아닌 것 같단다. 허리 높이의 담이 공연 무대처럼 펼쳐 있는 조촐하고 아담한 마당에서 우리는 잔치를 벌인다. 고운 달빛을 받으며 대금 연주도 하고 판소리도 듣는다. 상상속의 공연은 끝없이 이어지고 불상은 생로병사의 윤회 바퀴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측은히 내려다본다. 자신도 마음이 아프기는 마찬가지라는 듯이 한손을 가슴에 얹고서.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가야하는 곳, 해지는 서쪽을 불상은 바라보고 있다. 우리도 조용히 그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가까운 사람들의 빈자리를 금방 느끼지 못한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단지 그 사람의 그림자만이 남았을 때에야 깊은 상실감에 젖는다. 감국이 향기롭게 핀 불상이 있는 마당에 들어서자 나는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옷깃 한번 스쳐도 오백겁의 인연이라는데 우리는 7년이란 세월을 담아왔다. 우리가 가야하는 또 다른 세상에서 나무와 바람이 되어 수백년을 바라볼 수 있겠지. 아니 강가의 돌멩이로 만나 모래가 될 때까지 수천년을 울고 웃을까. 소슬한 가을바람이 불상을 한 바퀴 돌아 내 뺨을 어루만진다. 나도 불상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바라본다. 가슴에 손을 얹고서. 그리고 나지막히 중얼거린다.

강물 따라 흐르다보니

또 다른 곳에 도착할 시간이군요

고운 정만 담백 들었던 박물관 사람들

안녕, 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요

- 2009 겨울호 편집후기 진수옥

■ 편집회원 故진수옥을 추모하며 🍁

- 01 국화도, 정조, 조선시대, 보물 제744호
- 02 토우장식장경호, 신라 5~6세기, 국보 제195호
- 03 석조불입상, 고려 10~11세기





扶餘 九鳳里遺蹟 出土 鉞에 대한 考察

글 윤태영 _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I. 머리말

扶餘 九鳳里遺蹟은 1985년 발견매장문화재 신고로 알려졌다. 유적은 야산의 남사면 해발 25m 높이에 위치하며, 積石木棺墓로 추정된다. 여기서 한국식동검 11점, 동과 2점, 동모 1점, 동부 2점, 동경 2점, 동착 1점, 동사 1점, 마제석부 1점, 지석 1점, 흑도장경호 1점, 편구형흑도 1점 등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유적의 연대를 한국식동검의 형식, 동과·동모의 출현, 동부의 형태, 동경의 무늬 등을 근거로 기원전 3세기 후반~기원전 2세기 초로 보았다. 최근에는 본 유적의 연대를 기원전 3세기 전반 또는 기원전 4세기 말까지 소급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鉞의 기능과 용도를 추정하기 위해 『周禮·考工記』, 『淮南子』, 『周禮注疏』, 『春秋左傳正義』 등 중국 문헌 자료를 좀더 상세히 검토하여 鉞와 削이 형태가 동일한 것임을 究明하고, 이를 바탕으로 鉞의 기능과 용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II. 鉞의 機能과 用途

1. 中國 鉞의 用途

1) 削 關聯 中國 古代文獻 檢討

- ① 築氏為削. 長尺博寸, 合六而成規. 注, 今之書刀, 欲新而無窮. 注, 謂其利也, 鄭司農云, 常如新無窮已. 敝盡而無惡. 注, 鄭司農云, 謂鋒鏗俱盡, 不偏索也, 玄謂刃也脊也, 其金如一, 雖至敝盡, 無瑕惡也(『周禮』冬官考工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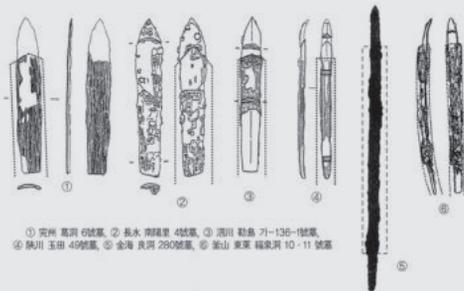


진시황릉 陪葬坑 출토 文官俑

용도는 簡牘에 表記된 誤字를 削除하는 書寫道具임을 高證했다. 초기의 鉤가 end-scraper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도구로 제작·사용되었지만, 楚民族이 이를 수용하면서 書寫道具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鉤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목공구가 아닌 書寫道具로 보아야 할 것이며, 목공구로의 이미지가 강한 ‘鉤’ 대신 ‘削’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듯하다. 비록 書刀의 예이긴 하지만 秦始皇陵 출토 陶俑과 睡虎地秦墓의 예로 보아 鉤 역시 中央行政組織에 소속된 官吏의 소지품 가운데 하나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鉤를 소유한 個人 또는 階層은 行政官吏로 범위를 좁히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鉤를 행정관리가 소유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2. 한반도 鉤의 出現과 부여 구봉리유적의 성격

부여 구봉리유적 출토 銅鉤는 중국 楚文化圈의 銅鉤를 알고 있는 집단에 의해 모방되었을 것이다. 한편 鉤의 기원지인 중국 남부에서 육로를 통해 한반도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오히려 楚文化圈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海路를 거쳐 들어왔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겠다. 이런 정황은 한국식동검 문화기에 등장하는 銅戈, 통나무관, 桃氏劍 등은 중국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문물이며, 특히 중국 華南地域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는 경향 때문이다. 이해보아 문자는 기원전 4~3세기 무렵에 한반도 중서부지역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때 문자의 성격은 교역을 위한 것으로 비교적 단순한 편이었다. 그리고 文字使用層 역시 鉤가 單獨個人墓에서 출토되는 양상으로 보아 극히 일부 개인이나 가계에 한정된 듯하다. 이전의 의례적 요소 대신 鉤·鑿·斧 등 공구류와 戈·鉞 등 무기류가 부장된 부여 구봉리유적은 당시 신진세력의 등장을 알려준다. 즉 부여 구봉리유적의 피장자는 新武器인 鉞와 戈로 武裝했으며, 銅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交易이라는 經濟權과 文字를 使用함으로써 정보력을 바탕으로 갖춘 신진세력이었을 것이다.



한반도 鉤의 손잡이 형태

表 3. 韓半島와 中國 鉤의 製作方法 比較

扶餘 九鳳里遺蹟	高州院地洞1號楚墓	望山楚墓	高門左塚楚墓M1	山西省長治分水嶺

한반도와 중국 鉤의 제작방법 비교

Ⅲ. 맺음말

이상으로 부여 구봉리유적 출토 銅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銅鉤는 중국 고대 문헌에 표현된 削과 동일한 것임을 고증했으며, 그 용도는 簡牘에 잘못 표기된 文字를 삭제하는 데 사용된 文房具의 一種으로 추정했다. 中國 銅鉤와의 비교를 통해 韓半島로 銅鉤가 유입된 배경이 交易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형식의 무기인 戈와 鉞의 등장과 문방구의 일종인 銅鉤의 출현은 제의적인 성격이 배제되고, 군사적 성격과 함께 경제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비록 이 시기의 문자와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논리의 역측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자의 발생과 주변지역으로의 전파과정 및 주변지역에서의 문자수용과정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 부여 구봉리유적 출토 동사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

| 한창균 _ 한남대학교 교수

이 논문에서는 고고학 및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부여 구봉리 유적에서 출토된 사의 형태와 기능이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되었으며, 종래 목공구로 알려진 사는 削과 동일한 특징을 지녔던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기원전 4~3세기에 문자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며, 또한 사와 공반하는 출토유물의 구성 관계가 당시 사회의 계층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이강승 _ 충남대학교 교수

구봉리 유적에서 나온 사라고 불리는 도구에 대하여 중국의 문헌과 발굴자료를 검토하여 削이라는 문방구의 일종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국에서 목간의 오류를 깎아 고치는 書刀와 비슷한 도구로, 남쪽의 초나라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유물인데,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경로를 육로가 아니라 해로로 전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문 중 중국자료의 전거나 자료의 원전을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논지가 무리가 없고 박물관학적으로 유물을 치밀하게 분석한 연구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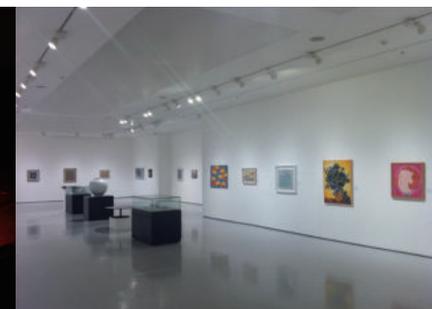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후원을 위한 기증품 경매

10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YFM, Young Friends of the Museum) 주관으로 K옥션과 함께 박물관 후원을 위한 기증품 경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경매에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후원하는 작가들과 미술 애호가들, YFM 회원들의 기증품 등 총 68점이 출품되었다. 유명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연예인과의 식사권, 유명호텔 숙박권, 항공권, 와인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권이 있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우리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미술을 사랑하고 박물관 후원에 뜻을 담은 일반인의 참여로 확대되었다. 열띤 경쟁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위탁품 전체가 낙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사회적 차원의 기증·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후원행사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한다.

국립중앙박물관 후원음악회

11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에서 YFM 주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후원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연주, 국립발레단 김주원, 이영철의 발레와 탭고, 뮤지컬 배우 홍광호 공연과 LDP 현대무용, 국악 신동 박성열의 판소리 등 총 4부로 구성되었다. 공연 후, 많은 참석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박물관의 발전을 후원하는 기금을 모을 수 있었다.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국립중앙박물관 후원음악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부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12대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김정태 선임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는 2011년 11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제12대 회장으로 김정태 하나은행장을 선임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후원음악회, 유물기증사업, 학술상, 학술강연회, 학술자료조사, 국제교류, 사회교육, 기부금품 모금 등 지속적인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특히 35년간 운영한 사회교육은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써 연간 1,700여명에게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세계박물관회연맹 서울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일들을 이어받아 이끌어 가고자 하니 그 책임의 막중함에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큼니다. 새로운 임원진과 평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락인사말을 통하여 전임회장이 이루어놓은 사업을 이어받아 더 키우고 박물관 후원사업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신임 김정태 회장은 2009년부터 부회장으로 우리회와 인연을 맺어왔다. 신임 부회장에는 신성수 고려산업 회장과 홍석조 보광훼미리마트 회장이 선임되었다. 그외 이사는 김영나, 김두식, 남수정, 박은관, 이견무, 이규식, 허용수이고 연임된 이사는 김신한, 윤석민, 윤재륜, 홍정욱이다. 감사는 김의형 현감사가 중임되었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제 36기 박물관 특설강좌 안내

1977년부터 일반국민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및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고자 개설된 박물관 특설강좌(일명: 박물관대학)의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안내

- 모집대상 : 전통문화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분
- 모집인원 : 화요일 - 200명 / 목요일 - 200명
- 강좌내용 :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미술사학, 불교미술, 사상사, 박물관학, 전시실교육 및 고적답사
- 수강기간 및 시간 : 2012년 3월 ~ 12월(매주 1회, 13:00 ~ 17:00)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2년 1월 12일(목)부터 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회비 : 450,000원(온라인 입금, 답사비 별도)
- 신청방법 : 현장접수(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국립중앙박물관회) / 인터넷접수(www.mumes.org)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umes.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행을 다녀온 화가들



조선시대 사람들도 해외여행을 했을까?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에 사행을 떠나는 길이 유일한 해외 나들이였다. 그때 접한 신기한 풍경과 문물을 그린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金正泰
副 會 長	申聖秀 洪錫肇
理 事	金英那 金信韓 金斗植 南秀淨 朴殷寬 成弼鎬 申憲澈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許榕秀 洪政旭
監 事	金義炯
事務局 長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천마회원

하나은행	金正泰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소장가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憲澈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具在善	Actium 부회장
庚園	광제사 주지
鄭溶鎭	신세계 부회장
都炯泰	갤러리현대 대표

은관회원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 대표
成弼鎬	광성기업대표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주)풍산주택회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南秀淨	(주)썬앳푸드 대표
許榕秀	(주)GS홀딩스 전무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金寧明	(재)예을 이사
趙顯相	효성그룹 전무
최철원	M&M(주) 사장
洪政旭	국회의원
金信韓	대성산업 전무
金承謙	(주)서릉통상 전무

청자회원

金芝延	(주)컨셉 대표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斌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許正錫	일진홀딩스(주) 대표
李宇鉉	OCI 부사장
金性完	스무디즈 코리아(주) 대표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金榮秀	변호사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慎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起雄	열화당 대표
辛永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炳讚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朴載蓮	성곡미술관 이사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서양화가
한국도로공사	柳徹浩
玄智皓	(주)화승 부회장
金南延	동훈디앤아이 대표
金寧慈	(재)예을 이사장
金正宙	(주)NXC 대표이사
梁汰會	(주)비상교육 대표
尹在倫	서울대학교 교수
丁恩美	종로편입아카데미 대표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崔惠玉	강좌 수료생
洪錫肇	보광훼미리마트 회장
洪誠杓	고려상사(주) 부회장
崔世勳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朴世昌	금호타이어 전무
崔杜準	(주)동남유화 대표이사
李海珍	NHN(주) 이사회 의장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李善眞	목금토갤러리 관장
洋賢財團	

薛允碩	대한전선 부회장
李英純	한국미술협회 회장
朴正遠	재미교포
李教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金載烈	제일모직 사장
金仁順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梁洪碩	대신증권(주) 부사장
朴禎原	두산 산업차량 부사장
朴知原	두산중공업 사장
曹在顯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曹榮美	(주)KPE 전무
金世淵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兌炫	성신양회(주) 부사장
Joseph Bae	KKR Asia 대표
具本商	LIG 넥스원(주) 부회장
朴善正	GLMI 대표
金裕錫	행남자기 부사장
咸泳俊	(주)오투기 회장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高基瑛	(주)금비 사장
尹賢慶	동화약품 팀장
韓榮宰	노루홀딩스 회장
崔仁善	회원
吳勝敏	동일산업(주) 전무
許允秀	(주)ALITO(주)ALITEK 부사장
俞承熹	코리아나 화장품박물관 부관장
李宰旭	(주)대주기공 사장
李萬圭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趙希卿	광주요그룹 이사
朴宣注	영은미술관장
尹寬	BlueRun Ventures 대표
李蓮花	경신금융 감사
林鍾勳	한미약품 상무이사
柳智勳	영남제분 부사장
李濬宇	흥아해운 상무
楊仁集	진로재팬 대표
尹勝鉉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吳治勳	대한제강 부사장
李學俊	서울옥션 대표
李芝衡	변호사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英姬	강좌 수료생
金京姬	(주)피오나조경 대표이사
韓惠舟	화정박물관 관장
柳英芝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